

임인년

초기불전연구원 근본도량 보리원

정초기도 니까야 독송



2/4(금)

입재(오전 10시)
기도(오후 7시)

2/5(토)

기도(새벽 5시)
기도(오전 10시)
기도(오후 7시)

2/6(일)

기도(새벽 5시)
회향(오전 10시)
공부모임(오후 2시)

자애 경(Metta-sutta, Sn1:8)

1. 도담음에 능숙한 자, 고요한 경지를 체험하면서 이처럼 행할지라.
유능하고 정직하고 진솔하며 고운 말에 온화하고 겸손하네.
2. 만족하고 공양하기 쉽고 일 없고 검소하며
감관은 고요하여 슬기롭고 거만 떨지 않고 신도 집에 집착하지 않네.
3. 현자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원컨데 모든 중생 즐겁고 안녕하여 부디 행복할지라.
4.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치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통통하거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모두 다
5.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중생 부디 행복할지라.
6. 남을 속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이라도 경멸하지 않으며
성냄과 적개심으로 남의 불행을 바라지 않네.
7. 어머니가 하나 밖에 없는 친아들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중생들을 향해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할지라.
8. 온 세상 위, 아래,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증오를 넘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할지라.
9. 섰거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깨어있을 때는 언제나
이 자애의 마음챙김을 개발할지니, 이를 일러 거룩한 삶이라 하네.
10. 계행을 지닌 자, 사건을 따르지 않고 바른 견을 구족하여
감각적 욕망에 집착을 버려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

큰 행복 경(Mangalasutta, Sn2.4)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왓티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뻘디까 원림(급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 숲을 두루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그 천신은 세존께 시로써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2. (천신)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으뜸가는 행복인지 말씀해주십시오.”
3. (세존)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4. 사부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5.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6.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7.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8.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들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9.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0. 인내하고 도반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1.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청정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2.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3.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그 모든 존재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 여래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를!
2. 모든 천신들이여, 경청하기를!
밤낮으로 그대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인간들에게 자애를 베풀기를!
그들을 잊지 말고 보호해 주기를!
3. 이 세상 것이건 다른 세상 것이건 천상의 것이건
그 아무리 귀중한 보배라 할지라도 여래와 견줄만한 것은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부처님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4. [도의] 삼매에 든 석가족의 성자는
번뇌 다함과 탐욕이 빛바래고 불사의 으뜸가는 법을 증득하였네.
그 법과 견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열반의] 법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5. 최상인 부처님은 청정하고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를 찬탄하였네.
그 [아라한의] 삼매와 견줄만한 것은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법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6. 선한 이들이 찬탄하는 네 쌍의 여덟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
그들은 선서의 제자들로 공양받을 만한 분들이라.
그들에게 올린 보시는 큰 결과를 가져오나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7. 부처님의 교법에서 그들은 확고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오염원에서 벗어나
[아라한]과를 얻고 불사에 도달하여 두려움 없이
[과의 증득인] 적멸을 즐기나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8. 땅속에 깊이 박힌 기둥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어 보는 선한 이 예류자들도
그와 같이 흔들림이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9. [예류자들은] 잘 설해놓으신 성스러운 진리를 심오한 통찰지로 분명하게 보나니
[비록 천상의 왕이나 전륜성왕 등으로 태어나] 심히 방일하더라도
여덟 번째 태어남은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0. 예류자는 [예류도의 증득인] 봄을 구족함과 동시에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취의 세 가지 법을 완전히 버렸고
네 가지 악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여섯 가지 심한 악행을 범하지 않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1. 그들은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어떤 악행을 짓더라도 그것을 숨길 수 없다네.
봄을 구족한 자는 악행을 숨길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2. 여름철 첫 달에 무성한 숲이 가지마다 꽃을 피우듯이
최상의 이익인 열반을 얻게 하기 위해
거룩한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부처님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3. 거룩하신 분, 거룩한 열반을 아시는 분,
거룩한 열반을 주시는 분, 거룩한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분,
위없는 그분께서 거룩한 법을 설하셨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부처님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4. 묵은 [업]은 다했고 새로운 것은 생겨나지 않으며
미래의 존재에 탐욕이 빛바래어
그 [아라한]들은 태어날 씨앗이 다했고

[더 이상] 자라기를 열망하지 않네.
등불이 꺼지듯 현자들은 적멸에 들었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5. 여기 모인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모두가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하는 여래이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6. 여기 모인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모두가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하는 여래이신
법에 예경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7. 여기 모인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모두가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하는 여래이신
승가에 예경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뗏사 경(Tissa-sutta, S22:84)

1. 한 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에서 제따 숲의 아나타뻘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2. 그 무렵 세존의 고종사촌인 뗏사 존자가 많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아무런 즐거움 없이 청정범행을 닦고 있고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3.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고종사촌인 뗏사 존자가 많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들이여,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해태와 혼침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아무런 즐거움 없이 청정범행을 닦고 있고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4. 그때 세존께서는 어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이름으로 ‘도반 뗏사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라고 뗏사 비구를 불러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는 세존께 대답한 뒤 뗏사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뗏사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뗏사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뗏사 존자는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뗏사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5. “뗏사여, 그대가 많은 비구들에게 ‘도반들이여,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뗏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구를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기를 여의지 못하고 갈애를 여의지 못한 자에게 그의 물질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갈 때 그에게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뗏사여. 뗏사여,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한 자는 그와 같이 된다. 뗏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에 대한 … 인식에 대한 … 심리현상들에 대한 … 알음알이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구를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기를 여의지 못하고 갈애를 여의지 못한 자에게 그의 알음알이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갈 때 그에게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뗏사여. 뗏사여, 알음알이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한 자는 그와 같이 된다.”

6. “뗏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욕구를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기를 여의고 갈애를 여의 자에게는 그의 물질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갈 때 그에게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뗏사여. 뗏사여,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 자는 그와 같이 된다.

뗏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에 대한 … 인식에 대한 … 심리현상들에 대한 … 알음알이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욕구를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기를 여의고 갈애를 여의 자에게는 그의 알음알이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갈 때 그에게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뗏사여. 뗏사여, 알음알이에 대한 탐욕을 여윈 자는 그와 같이 된다.”

7. “뗏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뗏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 인식은 … 심리현상들은 … 알음알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8. “뗏사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 그것이 어떠한 알음알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9. “뗏사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알음알이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梵行)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10. “뗏사여, 예를 들면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길을 잘 안다고 하자.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시오, 이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잠시 가면 두 갈래 길이 나타날 것이요. 그러면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깊은 밀림이 나타날 것이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크게 패인 늪지대가 나타날 것이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험한 낭떠러

지가 나타날 것ियो.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아름다운 평원이 나타날 것ियो.’라고.”

11. “뗏사여,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뗏사여,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범부를 두고 한 말이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여래·아라한·정등각자를 두고 한 말이다.

두 갈래 길은 의심을 두고 한 말이고, 왼쪽 길은 여덟 가지로 된 그릇된 도를 두고 한 말이니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 그릇된 삼매이며, 오른쪽 길은 여덟 가지로 된 성스러운 도를 두고 한 말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 바른 삼매이다.

깊은 밀림은 무명을 두고 한 말이고, 크게 패인 늪지대는 감각적 욕망들을 두고 한 말이며, 험한 낭떠러지는 절망과 분노를 두고 한 말이고, 아름다운 평원은 열반을 두고 한 말이다.

즐거워하라, 뗏사여. 즐거워하라, 뗏사여. 나는 교계하기 위해서 있고 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있으며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

12.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뗏사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무외 경(Abhaya-sutta, A4:184)

1. 그때 자넛소니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자넛소니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죽기 마련인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바라문이여, 죽기 마련인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자가 있다. 그러나 바라문이여, 죽기 마련인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도 있다.”

2. “바라문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자인가?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의욕을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병을 여의지 못하고 갈애를 여의

지 못하였다. 그런 그가 어떤 흑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흑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바라문이며, 이런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자이다.”

3. “다시 바라문이며, 여기 어떤 자는 몸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 갈애를 여의지 못하였다. 그런 그가 어떤 흑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흑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랑하는 몸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몸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바라문이며,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자이다.”

4. “다시 바라문이며, 여기 어떤 자는 선행을 하지 않았고 덕행을 하지 않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악한 짓을 했고 잔인한 짓을 했고 악독한 짓을 했다. 그는 어떤 흑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흑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선행을 하지 않았고 덕행을 하지 않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악한 짓을 했고 잔인한 짓을 했고 악독한 짓을 했다. 아, 참으로 나는 죽은 뒤에 선행을 하지 않았고 … 악독한 짓을 한 자들이 태어나는 그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바라문이며,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자이다.”

5. “다시 바라문이며, 여기 어떤 자는 정법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떤 흑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흑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법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바라문이며,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자이다.

바라문이며,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자는 이러한 네 부류가 있다.”

6. “바라문이며, 그러면 어떤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인가?

바라문이며, 여기 어떤 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의욕을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병을 여의고 갈애를 여의었다. 그런 그가 어떤 흑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흑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고 광란하지 않는다.

바라문이며, 이런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이다.”

7.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몸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 갈애를 여의었다. 그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랑하는 몸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몸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고 광란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이다.”

8.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고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고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으며 선행을 하고 덕행을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었다. 그는 어떤 혹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고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고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으며 선행을 하고 덕행을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었다. 아, 참으로 나는 죽은 뒤에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고 …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든 자들이 태어나는 그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고 광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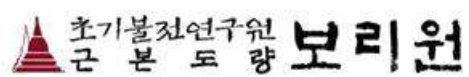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이다.”

9.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정법을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렸다. 그가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법을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였다.’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고 광란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이다.

바라문이여,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자는 이러한 네 부류가 있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에게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재가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51005, 경남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5-79
055) 321-8579 <https://cafe.daum.net/chobul>